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시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

홍영철

지구상에 생겨난 첫날부터 침략과 약탈, 전쟁만을 일삼아온 미제는 오늘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독단과 전횡, 강권에 매여달리면서 국제정세를 갈수록 격화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이행하면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세기전부터 해외침략과 약탈을 감행하여온 자본주의렬강들은 이 시기에 들어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과 약탈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383페이지)

19세기말~20세기초에 이르러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이행하는것과 함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렬강들의 식민지에속국가로 전락됨으로써 세계는 제국주의종주국과 식민지에속국가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자본투자지,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식민지들을 강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미제는 《미국이 아메리카대륙을 소유하여야 하며 전세계를 통제하여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는 무엇보다먼저 19세기말 《범아메리카주의》의 간판밑에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한 침략책동에 미쳐날뛰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미제는 이미전부터 저들의 교활한 수법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제창하는 한편 음흉하고 위선적인 《먼로주의》를 내놓고 그것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침략정책으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들고나왔던 《먼로주의》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속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감정이 더욱 고조된것으로 하여 미국지배층은 《먼로주의》를 더이상 저들의 침략목적에 리용할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미제는 이미 영향력을 상실한 《먼로주의》를 《범아메리카주의》로 바꾸고 이 지역에 대한 침략을 가일층 강화할것을 획책하였다.

19세기 80년대에 발생한 《범아메리카주의》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정치, 경제적지배권에 보다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한 미국독점체들의 제국주의적정책이었다.

《범아메리카주의》를 처음으로 제창한자는 1880년대초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블레인이었다. 블레인은 1881년 11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범아메리카회의소집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전체 아메리카주에 대한 《지도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기초하고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

미제는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책동으로 1889년 10월 워싱턴에서 제1차 범아메리카회의

를 소집하였다. 회의에는 도미니카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본부를 워싱턴에 범아메리카동맹을 창설할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범아메리카동맹은 미국의 강요와 조종밑에 움직이는 식민지 예속화정책의 도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정기적으로 회의에 끌어들여 미국통치배들의 의사를 강요하는 침략의 도구로 전환되었다.

미제는 범아메리카동맹조각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및 군사적예속화책동에 미쳐날뛰었다.

우선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섰다.

1895년 베네수엘라와 당시 영국의 식민지인 가이아나사이의 국경분쟁문제에 대한 미제의 간섭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였다.

미제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사이의 분쟁에 간섭해나선것은 석유산지와 금광을 가지고있던 오리노코강류역을 베네수엘라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베네수엘라로부터 그 지대의 리권을 빼앗아내려는 미국독점체들의 침략야망과 관련되었다.

19세기 90년대에 영국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일대를 강점함으로써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사이의 분쟁을 일으켰다. 미제는 이것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의 리익을 옹호하며 베네수엘라를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나섰다.

미국무성은 1895년 7월 20일 런던주재 미국대사를 통하여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사이의 분쟁을 미국이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것을 영국정부에 공식 통보하였다. 영국이 미국의 《중재》제의를 거절한 결과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9년 10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사이의 국경선에 관한 최종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그로 하여 베네수엘라의 동남국경선이 가이아나령토에 일정하게 침식되어 미제가 베네수엘라를 침략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사이의 분쟁은 바로 미제가 《범아메리카주의》의 간판밑에 저들의 대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미제는 력사상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첫 제국주의전쟁인 미국-에스빠냐전쟁을 도발하고 이를 통하여 쿠바와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식민지들을 탈취함으로써 식민지소유국으로서의 추악한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제가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침략전쟁의 대상을 에스빠냐로 정한것은 당시 미국이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던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지역이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어있었으며 로쇠한 에스빠냐군주제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 하여 몰락단계에 처하여있었던것과 관련되었다.

미제는 에스빠냐와의 전쟁을 도발하는데서 당시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쿠바인민의 반에스빠냐투쟁을 악용하였다. 당시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온 쿠바인민은 1895년에 또다시 에스빠냐의 압제를 반대하여 결기하였으며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망라한 독립전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교활한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쿠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 《옹호》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에스빠냐를 반대해나섰다.

1897년 6월 2일 미제는 미국주재 에스빠냐공사에게 각서를 보내어 미국이 쿠바문제의

《조정》에 개입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다음해인 1898년 1월 25일에는 《친선방문》의 간판밑에 순양함 《메인》호를 아바나항구에 들이밀었다. 에스빠냐와 아무런 사전교섭도 없이 감행된 이 《친선방문》자체가 에스빠냐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전쟁접경으로 이끌어가려는 완전히 도발적인 행위였다.

에스빠냐와의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고있던 미제는 1898년 2월 15일 아바나항에 정박하고있던 저들의 순양함 《메인》호를 폭파시키고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썩우면서 4월 25일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저들이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쿠바와 뿌에르토 리코의 강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1898년 8월 중순에 이르러 미제는 쿠바섬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며 에스빠냐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해 12월 10일 빠리에서 체결된 미국과 에스빠냐 사이의 강화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쿠바와 뿌에르토 리코, 필리핀, 괌섬 등을 강점하였다.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하던 시기 미제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해 얼마나 음흉하고 집요하게 미쳐날뛰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미제는 다음으로 20세기초 《큰 몽둥이정책》과 《딸라외교정책》의 간판밑에 라틴아메리카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선 미제는 《큰 몽둥이정책》을 제창하며 그 실현을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었다.

미국-에스빠냐전쟁결과 미제가 쿠바를 비롯한 여러 식민지들을 강탈한것은 미국에서 자본주의발전과 독점자본의 팽창을 촉진시켰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제가 대외침략책동에 보다 발광적으로 나서게 된 요인의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의 독점자본이 팽창된것과 관련되었다. 이로부터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침략교리로서 《큰 몽둥이정책》을 들고나왔다.

미제가 들고나온 《큰 몽둥이정책》에 의하여 20세기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보다 로골화되었다.

《큰 몽둥이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빠나마운하지대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20세기초 미제의 해외팽창계획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편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것이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빠나마의 친미세력을 규합하여 1903년에 《빠나마혁명》으로 볼리우는 반란을 일으키고 《빠나마공화국》이라는것을 조작한 후 빠나마운하에 관한 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빠나마운하지대는 미제의 《영구조차지》로 되었으며 운하지대외에도 운하의 건설과 개발, 토지리용권과 통제권 등을 미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빠나마운하지대를 틀어쥔 미제는 가리브해에서 저들의 침략적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쿠바에 대한 식민지에속화책동에 열을 올리였다.

미제는 쿠바에서 친미정권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음흉한 속심밑에 1900년 11월에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가 저들의 의도대로 헌법을 채택할수 없게 되자 미제는 미상원 의원 플랏트를 쿠바에 파견하여 《미국-쿠바관계조정위원회》를 조작하도록 하고 사전에 미국정부에 의하여 작성된 《플랏트수정안》을 쿠바

헌법의 부칙으로 헌법제정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미제의 군사적압력과 친미분자들의 매국배족책동으로 하여 침략적인 《플랏트수정안》이 헌법제정회의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되었다. 악명높은 《플랏트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꾸바는 미제의 예속국으로 전락되었다.

꾸바를 강점한 미제는 친미피뢰정권을 조작할 때까지 군정을 실시하였다. 1902년 5월 20일에 미제는 군정을 형식상 철폐하고 친미주구 빨마를 내세워 피뢰정부를 조작하고 《꾸바공화국》을 《선포》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꾸바공화국》이라는 것은 형식상 상하원으로 된 국회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으나 그것은 하나의 명색에 지나지 않았다. 실지에 있어서 미제는 꾸바에 정치, 경제, 군사고문들을 파견하여 피뢰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좌우지하였다. 피뢰정부와 국회를 조작한 미제는 1903년에 꾸바령토의 한 부분인 관따나모를 조차지의 명목으로 강탈하였으며 이해 12월에는 《꾸바-미국호혜조약》을 강요하고 이후 짧은 기간에 꾸바경제의 명맥도 전부 장악하였다.

또한 미제는 딸라외교정책을 제창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여달리었다.

딸라외교정책은 1912년당시 미국대통령 윌리엄 타프트가 국회에 보낸 서신이라는에서 떠벌인 때로부터 미제의 주요대외정책의 하나로 정식 표방된것으로서 딸라의 힘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흉악한 침략책동의 산물이었다.

미제는 딸라외교정책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자본투자를 급속히 늘어나갔다. 1897년에 미국의 대외자본투자액은 6억 3 450만US\$였는데 1914년에는 그것이 26억 5 250만 US\$에 달하였다. 이 자본들의 대부분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투자되었다. 그리고 1902—1914년까지의 기간에 유럽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32%,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77%, 중앙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158%, 남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237%로 급속히 늘어났다. 단편적으로 메히꼬만 놓고보아도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과 그에 추종한 친미적인 디아스반동정권의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1902년에 메히꼬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5억US\$였다면 1911년말에 그것은 15억US\$에 달하였다.

미제는 이밖에도 니까라과, 도미니까, 아이띠, 파페말라, 온두라스, 꼬스파리까 등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딸라외교를 계속 추구하면서 이 지역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책동을 강화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 미제야말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책동만을 일삼으며 비대해진 침략과 략탈의 원흉, 전세계인류의 주되는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날날이 까밝히고 온갖 지배주의적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아가야 할것이다.